

지방자치발전 보건복지부문 大賞 수상

전국 50개 언론 심사위원회 14개 자치단체 선정

포천시가 4월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2007 지방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보건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박운국 포천시장은 (사)한국언론인연합회의 서정우 회장으로 부터 '보건복지대상' 상패를 수여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째를 맞는 '지방자치 발전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50개 언론사 회원 중 선발된 심사위원회가 재정자립도, 사업의 경제성,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6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14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포천시는 65세이상 독거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매일 2만원씩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타시군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으며, 무료 급식 사업, 무료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 인권지원사업 추진하고, 무료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맞춤형 눈높이 장애인재활사업 및 장애인 건강검진·사회참여 프로그램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것에 대해 큰 호평을 받았다.

보건분야에서는 출산 축하금 지원 및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양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등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보건복지부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외에도 소외계층의 교육 및 재활치료 등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이 올 10월 개관될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적합한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운국 포천시장은 " 그동안 포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을 배려한 따뜻한 복지구현으로 건강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기자 forme65@paran.com)

목회단상

강자와 약자의 조화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늘 요구되는 말이 강자의 포용과 너그러움을 호소한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 속에서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

노벨상을 받은 호주의 동물학자 로렌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동물들은 종류별로 항복의 표시를 갖고 있다고 한다. 가령 개는 꼬리를 내리고 자빠져서 목을 보이고 원숭이는 엉덩이를 들고 읊조린다. 그것은 더 이상 싸울 자신이 없다는 표시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공격을 중단한다. 이처럼 공격을 중단하는 동물계의 질서 때문에 종(種)이 보존된다.

사람은 어떤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도 두고두고 추궁한다. 실패도 또 곱씹는다. 항복의 표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고도 끝까지 때려 눕힌다. 약자라도 사정없이 깔고 밟는다. 오히려 약한 점을 보이면 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허세(虛勢)를 부리게 된다. 참으로 인간만큼 잔인한 동물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허풍(虛風)과 과장법(誇張法)을 쓰게된다. 사람은 못해도 약자를 괴롭히지는 않는 상식이 필요하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도 하고 관용의 미덕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면 우리주위가 부드러워 환경이 되지 않을까 말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5장14절에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勸戒)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安慰)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교훈하신다.

문의) 031-532-2489



아름다운 생활 2

남성 피부 관리 -외모 가꾸는 남성이 매력적

"요즘은 피부 관리는 더 이상 여성 전유물이 아니다."

남성도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피부에 맞는 세심한 스킨케어가 필요합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남자는 '소인배'라는 고정 관념은 옛말이 되었고, 외모가 매력적인 남성이 자신의 삶에 충실할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비야흐로 피부 관리가 생존 전략의 하나가 된 셈입니다. 남성 피부는 여성보다 더 두껍고 건조하며 피지의 과잉분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피부를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드럽고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관리 방법을 살펴볼까요?

첫째, 피부 상태와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 계절,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 공급을 주어야 합니다. 남성은 수분함량이 여성의 1/3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면도, 자외선노출, 음주, 흡연 등으로 더

욱 건조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분섭취와 보습제를 꾸준히 챙겨 바르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면도 전에는 반드시 세안을 해야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안 시 찬물로 하면 모공속의 피지가 굳어 버리고 반면 뜨거운 물로 하면 피지가 너무 많이 제거되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남성 전용 세안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여름 휴가시만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킨케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제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꾸준한 피부 관리와 관심으로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남성이 되어보세요



뷰티컨설턴트 송명선 010-9757-7648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② 남북한 주요 지표분석

2004년 국민총소득 남한 6천810억 달러 북한은 208억 달러 32.7배의 차이



서희석 대성지역개발연구원 대표이사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구 증가율 경제난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와 영아 사망률이 증가한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도 총인구의 61% 정도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한은 여자 백 명당 남자 수가 99.5명, 북한은 96.5명으로 모두 여자가 많다는 것이다.

평균 수명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97년 들어 남자는 10.8세 여자는 13.6세까지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3년에는 다소 축소되어 남한 남자의 평균 수명은 73.9세 여자는 80.8세, 북한은 남자는 62.9세 여자는 67.8세로 남한이 북한보다 남자는 11세, 여자는 13세가 높다.

국민 총소득(GNI)도 2004년에 남한은 6,810억 달러 북한은 208억 달러로 32.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1인당 국민 소득도 15.5배의 격차를 보이는데 우리는 이미 2002년에 1만 달러를 넘어 2004년 현재 14,162달러이나 북한은 여전히 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914달러). 남북한의 물가나 북한의 배급 체제를 감안 하더라도 남북한의 경제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여러 상황이 좋았던 북한이 이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이 가져올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이 된 이후에도

많은 구동독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오히려 통일 이전을 그리워한다고 한다.

다른 산업 관련 비교치도 남북한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유 도입량은 남한이 790,992,000배럴, 북한이 4,376,000배럴이고 발전량도 남한이 3,066억kWh인 반면 북한은 190억kWh에 불과하다.

북단 직후 북한에서 송전을 끊어 남한에서 난리가 났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도로 총 연장도 남한이 96,037km인데 비해 북한은 24,449km에 불과하다. 쌀 생산량도 우리의 35% 수준이고 자동차 생산량, 수출액, 조강 생산량 등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다.

다만 철광석과 석탄의 생산량은 북한이 월등히 많다. 그러나 이러한 광물 한두 가지는 전체적인 경제 지표 비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것이다. 남한은 경제개발계획 등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룬 반면 공산주의 체제와 갑질성의 전제적 장기 집권과 그 아들인 김정일의 세습, 또 그 아들로의 세습이 이어지려 하는 북한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끌어안고 민족의 최대 소망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통일 독일의 경우 오래 전부터 서신 교환과 주민 방문 등을 통해 장기적인 통일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왕래도 북한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세습 정권에 대한 불만과 경제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는 있지만 우리의 연착륙 통일 정책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개성 공단이나 경수로 문제와 같은 남북한 경제 협력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체제 우위를 북한에 확실히 심어주고 그나마 남북 교류를 위한 확실한 물고 역할을 할 좋은 계기이다. 다만 참여 정부이든 다음의 다른 정권이든 국민적 합의와 총의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代表 文幸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칼국수
- 곰표국수·소면·칼국수

■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 전화 : 031-535-5773 ■ 팩스 : 031-534-13